

성체 분배자 교육 자료

2008.02.16_17 [충림동 성당 신규 교육]

● 성체 분배자의 자세

- 1) 성체 분배권자가 영성체를 하고자 하는 사람 앞에서 성체를 들고
“그리스도의 몸” 할 때,
오른손, 얼굴과 눈동자, 성합의 위치는 ?
☞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하십시오.
- 2) 성체 분배 때에 분배자의 시선은 ?
신자의 눈을 뚫어지게 보며 “그리스도의 몸” 해야 하는지,
성체를 보면서 해야 하는지,
또한 성체를 신자의 놓아줄 때
신자의 손바닥에 꼬옥 눌러 준다는 기분으로 하는 것인지,
떨구는 기분으로 해야 하는지?
☞ 성체를 바라보며, 성체를 자연스럽게 놓아 주십시오.

● 분배 도중 성체가 모자랄 때

- 1) 성체가 부족할 때 신부님들은 쪼개서 나눠주시는데, 성체분배자들도 쪼개어
분배 할 수 있는지?
☞ 미사 집전 신부님께 알리십시오.
- 2) 영성체 시간에 분배를 하던 도중 성체가 없을 경우, 다시 제대로 돌아가
새로운 성합을 분배자 본인이 그냥 가져다가 계속 분배해도 되는지?
☞ 미사 집전 신부님께 알려져 그 지시대로 따르십시오.

● 이럴 때는 어떻게?

- 1) 말씀 전례가 끝나고 성찬 전례 중간 쯤에 들어와 영성체를 하려고 할 때
성체를 영해 주어야 하는지?
☞ 말씀 전례 전에 들어온 사람은 성체를 영할 수 있지만 그 후에 들어온
사람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영성체 하러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드리도록 하십시오.

- 2) 몸이 불편하지 않은데도 입으로(혀로) 영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입에 영해 드리십시오. [한국 천주교회 사목 지침서 제78조 : 영성체는 혀로나 손으로 자유로이 할 수 있다.]
- 3) 성체가 붙어서 두 개가 한꺼번에 넘겨졌을 때는?
 ☞ 알게 되면 성체 하나는 되돌려 받으십시오. 그것이 어려우면 그냥 영 하게 하십시오.
- 4) 하루에 영성체는 2회까지 가능하다는데?
 ☞ 하루에 여러 대의 미사에 온전히 참례한다 하더라도 두 번만 성체를 영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천주교회 사목 지침서 제79조]
- 5) 성체를 받을 때 한 손으로 받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 가능하면 영해 드리십시오.
- 6) 손바닥에 놓기도 전에 두 손가락으로 성체를 집으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 손에 놓은 다음에 영 하도록 안내하십시오.
- 7) 영세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잘못하여 (잘 모르고) 성체분배를 하였을 경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또한 예방책은?
 ☞ 모르고 한 것은 그냥 넘어가시고, 기회가 있을 때에 알려 주십시오.
 영성체 하러 나오는 신자들의 손 모습이 왼손이 위 쪽에 있는지 살피고, 의심이 들면 성인일 경우 본명을 묻고, 어린이일 경우 학년을 물어보아 영세를 했는지 판단한 후에 성체를 분배합니다.
- 8) 영세를 받지 않은 사람이 성체를 영 했을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지?
 ☞ 이미 영 했으면 그대로 놓아두시고 다음에는 영하지 않도록 주지시키십시오. 영 하지 않았으면 성체를 돌려 받으십시오.
- 9) 성체를 받아 들고 신자들 앞으로 가다가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 일어 서십시오. (몸으로라도 성체가 훼손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신부님께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 성체를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는 어떻게?

- 1) 성체가 떨어졌고 또 발로 밟고 지나갔을 때는?
 ☞ 집어서 영 하십시오. 도저히 영 할 수 없는 경우는 따로 모셔 놓았다가 집 전 신부님께 알리십시오.
- 2) 성체 분배 도중 성체가 바닥에 떨어졌을 때 이를 다시 주워 올려서 모시는 방법은? 특히 흙 등에 오염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 흙을 털고 영 하십시오. 도저히 영 할 수 없는 경우는 따로 모셔

놓았다가 집전 신부님께 알리십시오.

● 성체 분배권자가 지켜야 할 예의

- 1) 성체 분배자 본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집전 신부님이 영해 주셔야 합니까? 본인이 직접 영해야 합니까?
☞ 신부님이 영해 주어야 합니다.
- 2) 성체 분배 전에 꼭 손을 씻어야 합니까? 또 분배 후에는?
☞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 3) 여름철에 분배시 땀이 몹시 흐를 경우에는 어떻게?
☞ 손수건으로 닦도록 하셔서 기능하면 성체에 땀이 배지 않도록 하십시오.
- 4) 신부님 옆에서 분배할 경우 어느 쪽에 서야합니까?
☞ 신부님께 물으시고 묻기 곤란한 때는 자연스럽게 하십시오.
- 5) 성체 분배 전과 후에 바쳐야 할 기도는?
☞ 주님의 기도를 하거나 성체 안에 계신 주님과 자유롭게 마음의 대화를 (성체 조배) 하셔도 됩니다.

● 성체 분배 시 성체 분배자의 몸가짐

미사 집전 사제로부터 성함을 받아서 지정된 자리에 가서 성체를 영해 줍니다.
“그리스도의 몸” 하면서 신자들에게 성체를 영해 주고 분배가 다끝났으면 성함을 사제에게 드리거나 제대의 성체포 위에 놓고 경건하게 인사하고 자리로 돌아갑니다.

- 1) 경건한 자세로 선다.
- 2) 경건하게 “그리스도의 몸” 하고 말한다.
- 3) 성체 외에는 다른 곳을 쳐다보지 않는다.

● 성체를 영 해 줄 수 없는 사람이나 상황에서는?

- 규칙 1 : 어떤 사람이 성체를 영 하러 나왔을 때는 영 할 자격이 없다고 무안을 주기보다는 의심스럽더라도 성체를 영 해 주는 편이 낫다.
- 규칙 2 : 어떤 사람이 대죄 중에 있다고 여겨지더라도 성체를 영 하러 나왔을 때는 공개적으로 수치를 주지 말고 그냥 성체를 영 해 준다.

- 1) 첫 영성체를 하지 않은 어린이에게는 보호자가 무안하지 않도록 친절하게 말하고 거절할 수도 있다.
- 2) 손은 내미는 모양(왼손이 오른손 위에)을 보면 영세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어느 정도 분간이 된다. 손을 서툴게 내밀거나, 성당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는 친절하게 “영세를 받았습니까?” 하고 묻는다. 받았다고 하면 영 해 주고, 영세를 받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영세 후에 영하는 것’이라고 친절하게 알려 주고 그냥 보낸다.
- 3) 실수하여 받아서는 안 될 사람이 받았더라도 그냥 놓아 두고 미사가 끝난 후에 잘 이야기하여 다음에는 받지 않도록 안내한다.

● 경건함이 부족할 때

성체를 영 하러 나오는 사람의 태도가 아주 불손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몹시 불쾌하겠지만 성체를 줄 동안은 가능하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또한 영성체를 하면서 손바닥을 제대로 펴지 않는다면 입을 잘 벌리지 않더라도 반응을 보여서는 안 된다. 가능하면 친절하게 영해 드린다.

● 성체 분배자의 삶

디모테오 전서 3장 1절 ~ 7절 까지에서 교회 주교가 지닐 자세를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본당의 성체 분배자는 본당의 중요한 직책입니다. 아래 성서를 항상 묵상해야 하겠습니다.

“교회의 감독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훌륭한 직분을 바라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감독은 탓할 데가 없는 사람이어야 하고 한 여자만을 아내로 가져야 하고 자제력이 있고 신중하고 품위가 있어야 하고 남을 후하게 대접할 줄 알며 남을 가르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술을 즐기지 않으며 난폭하지 않고 온순하며 남과 다투지 않고 돈에 욕심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기 가정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입교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교회의 감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감독이 되면 교만해져서 악마가 받는 것과 같은 심판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감독은 또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남의 비난을 받지 않고 악마의 울무에 걸려드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 성체 분배자 실천 사항

- (1) 기도 : 사제와 신자 공동체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특히 성찬 봉사 전 10분 이상 성체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 (2) 말씀 :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만나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 (3) 사랑 : 성체의 사랑을 겸손되이 실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특히 가난한 사람을 늘 방문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 (4) 겸손 : 단체나 소공동체 모임에 가서는 그 책임자를 겸손되이 섬기십시오.
- (5) 모범 : 악 표양이 되는 말이나 행동을 삼가고 죄를 지었으면 고백성사를 보시고, 신자들의 입에 오르내릴 정도로 악 표양을 보였으면 스스로 신부님에게 성찬 봉사를 쉬겠다고 하십시오.

[성체 분배자의 기도]

오소서 성령이여!

성체를 영 해 주는 성체 분배자들에게

성령의 불길을 내려주시어,

당신 사랑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당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일하는

겸손된 사도가 되게 하소서.

아멘.